

| 제 목 | 담당부서 | 비 고 |
|--|--------------|--|
| ① 이철우 지사, 국회와 청와대에 '지진특별법' 제정 강력 호소 국회의장 및 5당 원내대표 모두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협력 요청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에게 지진특별법, 신공항, 신항을 재개 건의 | 정책기획관 |  사진별첨 |
| ② 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본격 스타트! 청년, 중장년층 신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65개사 발굴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최고 50백만원 지원... 총 20억원 규모 | 일자리 청년정책관 | |
| ③ 강만산업 지원기반 조성 첫 발 내딛어...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착공식 강관 전문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융합 산업과 | 사진별첨 |
| ④ 경북도,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통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가는 판로확보 통한 소득증대, 농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 시장 논리보다 신뢰를 우선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모범사례 | 농식품유통과 | |
| ⑤ 경북도, 산불방지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산불방지 지역협의회 개최... 효율적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등 | 산림자원과 | 사진별첨 |
| ⑥ 경북도-시군, 경북형 도시재생 위해 머리 맞대~ 시군 담당과장 회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 도시계획과 | 사진별첨 |
| ⑦ 경북도,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실시 27일(수) 경주시 성동전통시장 찾아... 생활속 복잡한 세금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 | 세정담당관 | 사진별첨 |
| ⑧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물산업 정보 공유 26일(화) 도청 대구청사, 도 및 물산업 기업 등 30여명 참석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통해 물산업 기업 유관기관과 물산업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물산업과 | 사진별첨 |
| ⑨ '새바람 청렴경북' 실현, 청렴도민감사관이 앞장선다! 상주지역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 가져 지역 건의사항제도개선 사항 청취,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 감 사 관 | 사진별첨 |
| ⑩ 경북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이용 기술교육 실시 28일(목) 경북농업인화관 쌀 생산과잉 문제해결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위해 총력 며 재배농가 하계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430만원 지원 | 축산정책과 | |
|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제5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이철우 도지사, 성주군 현장방문 | 대 변 인 |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 |
| | | 작성자 | 기획관 | 정 성 현 | | |
| | | | 팀 장 | 박시균 | 주무관 | 김석기 |
| 연락처 | 054-880-2113 | | | | | |

이철우 지사, 국회와 청와대에 지진특별법 제정 강력 호소

- 국회의장 및 5당 원내대표 모두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협력 요청 -
-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에게 지진특별법, 신공항, 신한울 재개 건의 -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원인 발표 이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시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데 이어 26일 (화)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의원, 박명재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과 기업투자 감소에 따른 세제혜택, 도시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검토도 하고 있다” 고 답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속도감 있게 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 고 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역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대책 추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우 지사는 국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 지원 및 총리실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였으며, 장석춘 의원, 권칠승 의원, 정종섭 의원, 윤호중 의원, 김현권 의원, 이철희 의원도 만나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회복을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하는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국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하며

“지진원인이 규명된 것은 다행이나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개별적인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고통만 더할 뿐이다”면서

“포항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날 국회 방문을 마친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청와대로 발걸음을 돌려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났다.

이철우 지사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지진원인을 발표한 데 대해 지역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 발전사업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금 지급대상 심의와 손실보상을 신속히 추진 해달라”고 말하면서 기업 세제혜택 및 주택정비, 그리고 주택 거래세 감면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전면에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 지역을 위해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기 가동’과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강력히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의 조속한 선정,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경북의 현안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정치권, 청와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고, 포항시민들의 피해 구제와 포항시 지역재건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국회 및 청와대 방문 계획

■ 개 요

- 일 시 : 2019. 3. 26.(화) 09:50 ~
- 방문장소 : 국회 및 청와대 등
- 주요일정
 - (국 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 등 면담
 - (청와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면담
- 주요내용 : 지역 주요현안사항 건의 등

■ 시간계획

| 일 시 | | 내 용 | 비 고 |
|---------------|------|--|--------|
| 09:50 ~ 11:50 | 120' | • 국회 방문(원내대표면담 등) 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②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③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④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⑥ 이철희 국회의원(포항출신) | 국회의원회관 |
| 12:00 ~ 13:30 | 90' | • 오찬 - 김현권의원, 김정재의원, 포항시장 | 금산생대구 |
| 14:30 ~ 15:30 | 60' | • 청와대 방문 -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면담 -포항지진 후속대책 촉구(특별법제정 등) -신한울원전 조기가동 및 건설재개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조속 선정 | 청와대 |

국회 및 청와대 방문 이동 동선

1 방문개요

- 일 시 : 2019. 3. 26.(화) 09:50 ~
- 대 상 : 국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2 국회일정

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09:50 (본청 224호)

⇒

②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10:00 (본청 227호)

⇒

③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0:10 (본청 202호)

⇒

④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0:20 (본청 239호)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본청 232호) /부재

⇒

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10:30 (본청 223호)

⇒

⇒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

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포항출신)

11:00 (회관 923호)

⇒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회관 904호) / 부재

3 청와대 일정

① 강기정 (정무수석)

14:30

⇒

② 김수현 (정책실장)

15:00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 | | |
| | | 작성자 | 정책관 | 박성근 | | |
| | | | 팀장 | 이배일 | 주무관 | 한미애 |
| 연락처 | 054-880-2759 | | | | | |

올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본격 스타트!

- 청년, 중장년층 신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65개사 발굴 -
-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최고 50백만원 지원... 총 20억원 규모 -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전년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올해 청년 또는 중장년층의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65개사 총 20억원으로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개보수 및 운동기구,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기숙사 가구 등 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를 고용규모에 따라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23개 시군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gyeongbuk.work.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3년간 140개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39억원의 근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장기채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16~2018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140개 지정, 청년신규채용 1,951명

한편, 도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을 포함한 신규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존경받고 칭송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 ◆ 청년 및 중장년층을 포함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
- ◆ 고용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근로복지 편익 증대 및 지역기업에 대한 일자리인식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2020. 2월
- 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1,400)
- 사업대상 : 총 65개 정도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19년도 청년 및 중·장년층을 포함한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지원

※ 2016년~2018년도까지 청년고용 우수기업 140개 지정 및 청년신규 채용 1,951명 달성, 고용유지율 우수기업 8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 지원
 -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 운동기구, 공기정화기(공장동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냉난방기(노후물품), 기숙사·휴게실 가구 등
- 도·행·재정적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인턴사원 우선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한도 최대 3억원→5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한도 최대 3억원→5억원) 지원 우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대상 업체 선발 시 우대, 지방세무조사 3년간 유예

■ 향후 계획

- 시군 모집창구 상시 운영 등 지역기업 적극 발굴·지원 : 2019. 3월 ~ 12월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 | | | |
| | | 작성자 | 과장 | 정희석 | | |
| | | | 팀장 | 윤태열 | 주무관 | 권경진 |
| | | 연락처 | 054-880-2463 | | | |

강관산업 지원기반 조성 첫 발 내딛어..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착공식

- 강관 전문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통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6일(화) 전우현 경제부지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송경창 포항부시장, 포항시의회의장 및 관련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블루벨리국가산업단지 내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 건립 예정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고부가 강관산업 및 철강산업의 본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기술센터는 산업부·경북도·포항시가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201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올해 포항블루벨리국가산업단지 연구시설용지(600-1 필지)에 부지 7,582㎡, 연면적 2,725㎡ 규모로 시험평가동, 사무동, 부식동 등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2021년까지는 강관 피로 및 굽힘시험기, 저온인성 시험기 등 업계 수요가 높은 22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평가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국 유일의 강관분야 전문 지원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센터는 제철소와 강관제조사가 분리되어 소재개발과 제품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강관 산업구조에서, 소재 적용 및 제품 신뢰성 검증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품 시험인증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신속한 피드백, 수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강관업계는 작년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센터가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강관산업의 유기적인 밸류체인 형성을 통해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술센터가 블루벨리국가산업단지에 첫 삽을 뜨는 시설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강관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고품질 강관¹⁾ 기술센터 착공식 개최

개 요

- 일 시 : 2019. 3. 26(화) 14:00
- 장 소 : 블루밸리국가산단 연구시설용지 600-1(센터 건립부지)
※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87-2번지
- 참 석 : 150명 정도
 - 경제부지사, 도의회의장, 포항 부시장, 도·시의원
 - 관련 기업(강관사) 대표, 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기관
- 주요내용 : 사업 및 공사개요 보고, 기념사, 축사, 착공 퍼포먼스 등

고품질 강관 기술센터 건축개요

- 위치규모 : 포항 블루밸리산단 內 / 부지 7,582㎡, 건축연면적 2,725㎡
- 주요시설 : 실험동(1동) : 지상 1층, 연면적 1,218㎡,
사무동(1동) : 지상 2층, 연면적 1,198㎡,
부식동(1동) : 지상 1층, 연면적 309㎡
- 건축비 : 5,421백만원 (부지 1,471, 센터 3,950)
- 공사기간 : 2018. 12 ~ 2019. 12 (12개월) ※ '17년 산업부 지역거점 사업 공모 선정



시간계획

| 시 간 |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3:30~14:00 | 30' | ▶ 참석자 등록 | |
| 14:00~14:05 | 5' |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 회 |
| 14:05~14:50 | 45' | ▶ 본행사 ① 사업추진 및 공사 경과보고 ② 기념사, 축사 ③ 착공 퍼포먼스 (발파식) | 포항 부시장, 경제부지사, 도의회의장 등 |
| 14:50~15:00 | 10' | ▶ 폐식, 환송 | 참석내빈 |

* 강관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으로 배관용, 건축용, 수송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극한지 자원 개발 확대 등에 따라 에너지 수송용 강관 중심으로 수요 증가추세

- ◆ 극한지 자원개발, 세일오일 채굴 등 세계적으로 강관수요 지속 증가
- ◆ 고부가 강관 시험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1년(5년간)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30, 포항시비 70)
 - '19 사업비 : 4,275백만원(국비 2,240, 도비 300, 포항시비 1,735)
- 사업주관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 위치/규모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內 / 부지 7,582㎡, 건축 2,725㎡
- 주요내용
 - 강관 전문 시험평가동 건립(1개소), 시험평가 장비구축(22종)
 - 장비운영, 기술지원 등 기업지원

■ 추진상황

- '17년 산업부 지역거점사업 선정('15. 12.)
- 1차년도 협약체결('17.4), 사업 부지매입('17.9)
- 실시설계 및 시공사 선정, 기술센터 착공('18.12) * 착공식('19.3.)

■ 향후계획

- 3차년도 협약('19.3), 강관 기술센터 준공('19.12 예정)
 - 평가 장비구축(3차년도 장비 저온인성시험기 등 5종)
 - 고부가 강관 시험인증체계 구축, 장비운영 및 기술지원 등
- ※ 고부가 강관 기술지원 기반조성, 시장 점유율 확대(5% → 10%, 세계 3위 수준)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 | | |
| | | 작성 자 | 과 장 | 설 동 수 | | |
| | | | 팀 장 | 김철수 | 주무관 | 조옥숙 |
| | | 연 락 처 | 054-880-3349 | | | |

경북도,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통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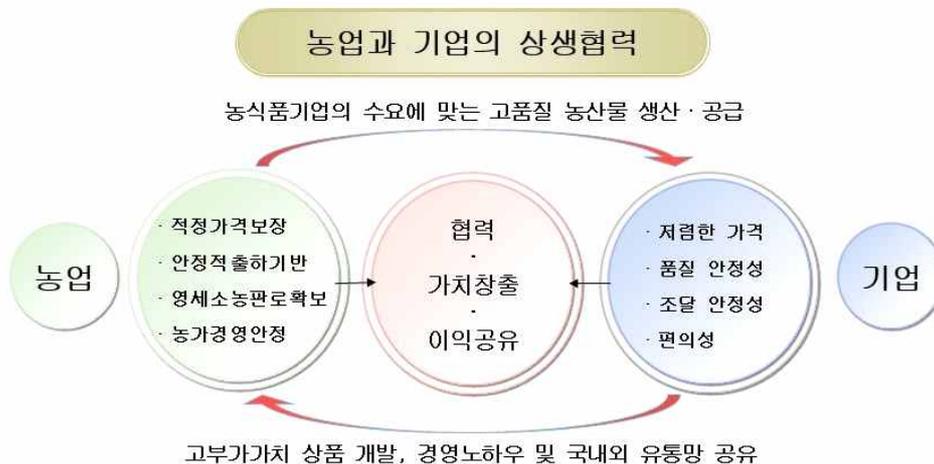
- 농가는 판로확보 통한 소득증대, 농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 -
- 시장 논리보다 신뢰를 우선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모범사례 -

경상북도는 농업과 농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2017년 산내팔작목반(경주시) 등 6개소에 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구미시 가공용감자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7개소와 (주)오리온 등 농식품기업 9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여 2,618농가가 참여해 거래량 7,952톤, 152억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생산자단체와 농식품기업 13개소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무관하게 농산물 공급과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구미시 가공용감자작목반에서는 (주)오리온과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로 생산협력 체계를 구축해 66ha에 1,070톤을 납품하여 6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김민수(구미시 가공용감자작목반 총무, 42세)씨는 “농사를 지으며 알게 된 경험을 (주)오리온과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농가의 현장 경험이 오리온의 노지재배용 스마트팜 영농기술과 만나 농가와 농식품기업이 상생협력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에게는 컨설팅, 품질관리, 시설·장비 임차, 영농환경 개선 등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기업에게는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시장 가격이 낮으면 농식품기업이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시장 가격이 높으면 농가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시장 논리보다 신뢰를 우선한 상생 경영의 좋은 사례다” 면서 “앞으로 도내에 확대·전파해 농가와 농식품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 | |
| | | 작성자 | 과장 | 김재준 | | |
| | | | 팀장 | 김주태 | 주무관 | 이종환 |
| | | 연락처 | 054-880-3737 | | | |

경북도, 산불방지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

- 산불방지 지역협의회 개최... 효율적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등 -

경상북도는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일(화) 도청 회의실에서 ‘산불방지 지역협의회’를 열고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 남부지방산림청, 제50보병사단 등 유관기관 간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산불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산불진화 체계, 산불현장 통합지휘권 인계인수 절차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주요임무와 역할에 대한 개선 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1월이후) 도내에는 총 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3.6ha가 소실되었으며, 기상예보에도 평년대비 강수량이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봄철 잦은 강풍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산불감시인력 2,450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0여명을 전진 배치하고 가용헬기 31대(산림청 7, 시군 임차 14, 소방본부 2, 군부대 8)가 골든타임(신고부터 진화시작까지 30분 이내)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는 임차헬기로 계도 비행을 하는 등 지상과 공중의 진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불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

오는 재난인 만큼 논밭두렁 소각이나 산림 연접지 쓰레기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면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산불방지지역협의회 개최 계획

효율적 산불예방·진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별 구체적 임무와 역할분담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민·관·군 합동예방과 진화공조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와 기반마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6.(화) 14:00 ~ 16:00
- 장 소 : 도청 중회의실(2층 화랑실)
- 참석인원 : 36명
 - 위 원 :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장), 경북지방경찰청(경비과장)
제50보병사단(군수참모), 경북교육청(교육안전과장), 안동항공관리소장,
울진항공관리소장, 경상북도소방본부(대응예방과장),
경상북도(안전정책과장), 경상북도(친환경농업과장)
 - 시·군 : 산림부서장 등

주요내용

- 산불방지 종합대책 설명(PPT)
- 산불방지 발전방안 종합토론 및 정보공유 등

시간계획

| 시 간 | (분) | 내 용 | 비 고 |
|-------------|-----|---------------------|----------|
| 13:50~14:00 | | 등록 | |
| 14:00~14:05 | `5 | 참석자 소개 및 안내 | 산불방지팀장 |
| 14:05~14:10 | `5 | 인사말씀 | 부위원장(국장) |
| 14:10~14:20 | `10 | 산불방지 종합대책 설명(PPT) | 산림자원과장 |
| 14:20~14:50 | `30 | 산불방지 발전방안 종합토론 및 건의 | 국장 주재 |
| 14:50~15:00 | `10 | 기관별 당부사항 및 마무리 말씀 | |
| 15:00 ~ | | 폐회 | |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 |
| | | 작성자 | 과장 | 김정수 | | | |
| | | | 팀장 | 박종태 | 주무관 | 양영준 | |
| | | 연락처 | 054-880-3936 | | | | |

경북도-시군, 경북형 도시재생 위해 머리 맞대~

- 시군 담당과장 회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

경상북도는 지난 25일(월) 경북개발공사 회의실에서 도시재생관련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공모사업 선정준비를 위해 마련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추진할 2019년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행정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선정된 17개 사업의 추진점점 및 23개 시군의 공모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 선정된 시군의 사업선정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동안 경북도는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18개지구 3,8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영주시는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해 할매목공장, 할매목공소 운영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1시군에 1개소 이상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올해 공모준비 사업에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군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신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군-전문가-주민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332개 읍면동 중 255개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경북형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재생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선 시군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도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2019도시재생 준비&점검회의 계획

❖ 회의 목적 ❖

- 도시재생 최근동향 특별강연과 2019년 도시재생 추진관련 정부의 주요현안 전달과 시군의 준비상황을 점검·관계자간 업무공유
- ※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기구(LH)의 특강 병행

□ 점검회의 계획

- 일 시 : 2019. 3. 25.(월) 14:00 ~ 16:30
- 장 소 : 경북개발공사회의실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35)
- 참 석 : 50명 [시군별 2명(과장, 외1), LH지원기구, 道]

□ 회의 내용

- 주요이슈 및 현안 전달
 - 2019도시재생 공모관련 주요이슈(생활SOC, 어울림 플랫폼 등)
 - 신규사업 발굴(여건변화), 센터운영, 청년인턴십, 등 현안전달
- 도시재생 준비를 위한 정부의 주요현안(특별강연)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동향
 - 여건변화에 따른 시군에서의 도시재생 준비 방법 소개 등

□ 시간계획

| 시 간 계 획 |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4:00~14:10 | 10' | • 등록, 개회, 인사말, 소개 등 | |
| 14:10~15:00 | 50' | • 정부 도시재생현안 설명(특강) | 내 정부지원기구 이상준 박사 |
| 15:00~15:10 | 10' | • break time | 장소정리 |
| 15:10~15:25 | 15' | • 도시재생 주요업무 전달 | 道 도시계획과장 / 재생팀장 |
| 15:25~16:30 | 65' | • 시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청취 | 상호의견 교환 |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 | | |
| | | 작성자 | 담당관 | 강 상 기 | | | |
| | | | 팀 장 | 임진걸 | 주무관 | 이상석 | |
| | | 연락처 | 054-880-2212 | | | | |

경북도,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실시

- 27일(수) 경주시 성동전통시장 찾아.. 생활속 복잡한 세금문제, 속 시원하게 해결 -

경상북도는 27일(수) 경주시 성동전통시장에서 생활 속 복잡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는 지방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도내 마을세무사 등 10여명이 합동으로 매분기마다 지방세와 국세 관련 일상생활 속 궁금증이나 복잡한 세금문제를 일대일 무료 상담하는 세무 현장 서비스다.

한편 이번 상담에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북도와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복잡한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상담을 받기 어려운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90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시군에서 도민의 세금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지난해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은 2,192건으로 전화상담 1,596(73%)건, 방문 및 팩스 등이 596(27%)건이었으며, 상담내용은 국세가 1,710(78%)건, 지방세 482건(22%)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는 도청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마을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재능을 기부해 도민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는 마을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상인 등 더 많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세무 현장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물산업과 | | | | |
| | | 작성자 | 과장 | 윤봉학 | | | |
| | | | 팀장 | 이진원 | 주무관 | 최창석 | |
| | | 연락처 | 054-880-3563 | | | | |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물산업 정보 공유

- 26일(화) 도청 대구청사, 도 및 물산업 기업 등 30여명 참석 -
-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통해 물산업 기업, 유관기관과 물산업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경상북도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26일(화) 도청 대구청사에서 물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를 개최했다.

‘물산업 협력 커뮤니티’는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이 협업해 물산업 기업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원하는 산·관·연 협의체다.

2017년 9월 발대식 이후 분기별로 개최해 7회째를 맞은 협의체는 지금까지 물기업체에 16건의 R&D연구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경북 물산업 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 명실상부 대표적인 산·관·연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8.12.13)으로 물산업 육성을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분야에 포함시켜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2019년 물산업 협력 커뮤니티 기업지원 전략’ 및 ‘상하수도분야 해외진출 전략’, ‘해수 담수화 기술과 사업경쟁력’ 등을 주제로 소개하였으며, 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판로 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

분야에 대하여 물산업 기업들과 정부정책 및 시장동향을 공유하며 물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봉학 경북도 물산업과장은 “물산업 협력커뮤니티는 지역 물기업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내 대표적인 물산업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춰 정확한 시장정보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의 물산업 기업들이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물산업 선도기업 R&D 지원을 위한

물산업 협력커뮤니티 개최

◆ 물산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북 선도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해외 시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3. 26(화), 15:00
- 장 소 : 경북도청 대구청사 회의실(별관5)
- 참 석 : 30명 정도 (道, KISTI, 경제진흥원, 선도기업)
- 내 용
 -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2019 물기업 지원전략 소개
 - 상하수도 분야 해외진출전략, 선도기업협의회 발전방안 토론 등

■ 시간계획

| 구 분 | | 내 용 | 비 고 |
|----------------------|-----------------|--------------------|---|
| 개회식 (20') | 15:00~15:05 05' | • 개회 / 내빈 소개 | 사회자 |
| | 15:05~15:20 15' | • 인사말씀 | 물산업과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선도기업 협의회장 KISTI 대구경북지원장 |
| 협력 커뮤니티 (130') | 15:20~16:10 50' | • 상하수도분야 해외진출 전략 | (주)삼안 오동운 상무 |
| | 16:10~17:00 50' | • 해수담수화 기술과 사업경쟁력 | 효성굿스프링스 김영두 부장 |
| | 17:00~17:10 10' | • Coffee Break | |
| | 17:10~17:30 20' | • 2019 물산업 기업 지원전략 | KISTI 노대경 선임 |
| 협의회 (30') | 17:30~17:40 10' | •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 프로그램 | 경제진흥원 |
| | 17:40~18:00 20' | • 선도기업 협의회 발전방안 토론 | 선도기업협의회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감사관 | | | |
| | | 작성자 | 국장 | 이창재 | | |
| | | | 사무관 | 박종하 | 주무관 | 이성희 |
| 연락처 | 054-880-4354 | | | | | |

‘새바람 청렴경복’ 실현, 청렴도민감사관이 앞장선다

- 상주지역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 가져 -
- 지역 건의사항·제도개선 사항 청취,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등 -

경상북도는 26일(화)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지역 청렴도민감사관 30여명과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 경상북도의회 김진욱·김영선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등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한 ‘상주지역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의 상주시 종합감사(3.18~3.29)와 연계해 지역현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수렴하여 도·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와 상주시의 주요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청렴도민감사관으로부터 지역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한 후,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경과를 직접 듣고 사업장 점검 활동도 펼쳤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청렴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경북도의 행정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 파수꾼으로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정행위와 일상생활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기탄없이 제보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여론과

의견 수렴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5기 청렴도민감사관 456명이 활동 중에 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평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제안은 물론 경북도가 주관하는 감사 참관, 시군 종합감사 시간담회 참여, 주요사업장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붙임 사진자료

| | | | | | | | |
|--|--------------------------------------|------|--------------|-------|-----|-----|--|
|  경상북도 | 보도자료 【19. 3. 26(화)】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 | | | |
| | | 작성 자 | 과 장 | 남 진 희 | | | |
| | | | 팀 장 | 김두영 | 주무관 | 서원아 | |
| 연 락 처 | 054-880-3421 | | | | | | |

경북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이용 기술교육 실시

- 28일(목) 경북농업인회관 쌀 생산포잉 문제해결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위해 총력 -
 - 벼 재배농가 하계 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430만원 지원 -

경상북도는 쌀 생산 조절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28일 (목) 오후 2시, 경북농업인회관에서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경종농가와 시·군, 농·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첫 시행되면서 사업 참여 농가들이 재배기술 부족, 가뭄·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강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배수관리, 논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교육 등 논에서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사료작물(총채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생산이용 기술교육,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 세부 추진요령 순으로 진행된다.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과잉되는 쌀 수급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하계작물에 한해 ha당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을 대표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판로 문제를 사전 해결하기 위해 자가소비를 제외하고는 출하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계작물은 ha당 340원 지원하며, 동·하계작물 중 한번만 지원 가능

사업 참여시 조사료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장거리유통비, 기계·장비 등 지원이 가능하며, 0.5ha이상 집단 재배지에 동계작물 재배시 조사료 재배 장려금으로 ha당 4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년도 사료작물 작황 불량과 쌀값 상승,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 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 올해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가 한우 최대 주산지인 만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도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관내 농업인들과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2019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교육』 개최

- ❖ '19년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논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기술 교육을 통해 시·군 및 농·축협
담당업무 역량 배양과 농가 정보전달 도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3. 28.(목), 13:30 ~ 16:50
- 장 소 : 경북농업인회관(3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축협 업무 담당자, 대구·경북지역 축산·
경종농가 등 200여명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경상북도
- 주요내용
 - 논에서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 기술
 - 논 타작물 사료작물 재배관련 질의응답 등

□ 시간일정

| 시 간 별 |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13:30~14:00 | 30' | ▶ 등 록 | |
| 14:00~14:10 | 10' |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 14:10~14:20 | 10' | ▶ 인사말씀 |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 |
| 14:20~16:20 | 120' | ▶ 논타작물 사료작물 재배 및 이용교육 | 한국조사료협회 임영철 회장 |
| 16:20~16:50 | 30' | ▶ 질의응답 | " |

※ 교육시간 및 순서는 교육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계획

- 신청기간 : '19. 1. 22. ~ 6. 28.(사업대상자 선정: 7.15.)
- 지원단가 : '18년 400만원/ha→ '19년 430만원(동계작물 340)
- 지원작물 :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 조사료 재배농지 중 10월말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수확(사일리지 제조 등) 하지 않을 경우 풋거름작물에 준해 지원(340만원/ha)
 - * 사일리지 제조 확인 이행점검 기간: '19.7.1. ~ 10.31.
 - * 수단그라스는 적기 수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성, 사료가치 저하 등의 문제로 유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재배 시 주의필요
- 목표면적(전국) : 10천ha/55천ha ('18년 실적 9,141ha/26,550ha)
- 논 타작물 재배 신청시 출하약정서 제출(자가소비 제외)하도록 하여 판로문제 사전 해결

□ 행정사항

- '19년 논타작물 예산(전국) :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 기계장비 24억
- 논 타작물 하계 조사료 품질관리 강화
 - '19년부터 하계 조사료까지 품질등급제 확대
- 하계 조사료 종자 확보 (*수요발생시 추가확보 가능)
 - 사료용벼 : 종자원 50톤, 실용화재단 300톤 확보(7천ha 내외)
 - 옥수수 340톤 (약 11천ha), 수단 790톤 (약 20천ha) 확보
- 각 축산단체별 '19년 논 타작물 생산·이용 목표 부여
 - 농협 3천ha, 축산단체·TMR 공장 1천ha 책임판매(자가소비 6천ha)
- 혼합건초 해석보완 및 일제정비 등 관리 강화
- 축산단체별 수요자 파악 후 소속 지자체에 수요자 정보 제공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제5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 27일(수) 오전 10시30분 청도군 경북근로자복지연수원에서 열리는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제59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 이철우 도지사, 청도군 현장방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 27일(수) 오후 2시30분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도군을 현장 방문한다.